



29일 일본 도쿄 요요기 국립 실내경기장에서 열린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아시아 재예선 경기에서 한국의 이상은이 일본 수비를 뚫고 슈트를 성공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도쿄서 재현 ‘베이징 티켓’ 되찾았다

한국 여자핸드볼, 일본 34-21 가볍게 제압

‘이제는 베이징의 금메달을 향해’ 여자핸드볼 태극 남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일본을 꺾고 베이징올림픽 본선에 진출해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다시 만들어냈다.

임영철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9일 저녁 도쿄 요요기 국립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진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예선 재경기에서 한 수 아래 일본을 34-21, 무려 13점 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특히 한국 여자핸드볼은 1984년 LA 올림픽부터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세웠다.

한국과 일본만 출전한 이번 재경기에서 승리한 한국은 단 한 장이 걸려 있는 베이징행 본선 티켓을 차지해 2004년 아테네올림픽 결승에서 덴마크에 승부던지기 끝에 아쉽게 놓친 금메달에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여자핸드볼이 올림픽 정식종목이 되던 1976년 몬트리올 대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선에 나섰던 일본은 32년 만에 본선행을 노렸지만 기량 차를 실감하며 주저앉았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2개(1988, 1992), 은메달 3개(1984, 1996, 2004)를 따낸 한국에 일본은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전반 2분 김차연이 일본 수비진 깊이 파고 들어 터닝 슈트를 성공시키며 선제골을 넣은 한국은 곧바로 동점골을 내줬지만 이후 7분 동안 명복희의 잇따른 7m 스로 성공과 우선회의 속공, 이상은의 돌파 슈트, 안정화의 돌파 등이 작렬하며 금세 7-1로 스코어를 벌렸다.

한국은 상대 슈팅 동작에서 파울을 범한 오성욱이 2분 간 퇴장당한 사이 일본은 2골을 쫓아왔지만 오성욱의 개인 돌파와 안정

화의 속공이 또 폭발하며 10-3으로 달아났다.

한국은 일본의 계속되는 패스 미스와 슈팅 날발로 계속 점수 차를 유지하며 전반을 18-12, 6점 차로 마쳤다.

후반 들어 한국은 한 골을 먼저 얻어맞았지만 주도권을 빼앗기지지는 않았다. 주장인 수문장 오영란의 연속되는 선방 속에 한국은 오성욱의 날카로운 패스와 골문 구석을 노리는 슈팅이 터지며 점수를 계속 벌렸다.

한국의 주 득점원은 속공이었다. 후반 16분 24-18 상황에서 안정화와 김차연, 문필희, 우선회가 4차례 연속으로 속공을 성공시켜 금세 28-29, 9점 차로 달아났다.

후반 20분에는 경기를 매끄럽게 조율하던 오성욱이 외곽에서 캐논 슈팅을 폭발시키며 29-19, 10점 차로 점수를 벌렸다.

이미 경기를 포기한 일본은 패스미스와 맥이 빠진 슈팅을 날발하며 더 이상 따라올 힘이 없었고 한국은 여유롭게 대승을 마무리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문소리·김정은 등 2천여 응원단 “대~한민국”

한국과 일본의 2008 베이징올림픽 여자핸드볼 아시아 예선 재경기에서 2천여 명의 한국 응원단은 경기 내내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다.

‘태극전사 파이팅’, 한국 선수단 이겨라!, ‘벛츠 고 베이징올림픽’ 등이 쓰인 플래카드를 건 응원단은 붉은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도쿄 요요기 실내체육관 본

부석 맞은편 왼쪽에서 경기 시작 1시간 30분 전부터 응원전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2004년 아테네올림픽 투혼의 은메달의 감동을 스크린에 옮긴 영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에서 주연을 맡은 문소리와 김정은도 한국 응원석에 자리를 잡고 열띤 응원을 벌였다. 이들은 누구보다 크게 ‘대~한민국’을 외쳤다.

경기가 시작되자 대한핸드볼협회가 특별히 파견한 응원단장과 치어리더 6명이 응원을 이끌었다.

한국이 전반을 18-12, 6점 차로 앞선 채 마치는 등 줄곧 앞서가자 일본 응원단은 힘을 잃었다. 파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울트라 닛폰’은 기가 죽어 더 이상 응원할 힘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222cm 최장신 하승진 ‘KCC 맨’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경희대 김민수는 SK행

한국 농구 최장신 센터 하승진(23·221.6cm)이 프로농구 전주 KCC 유니폼을 입게 됐다.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2008 한국농구연맹(KBL) 신인 드래프트에서 하승진은 전체 1순위로 KCC의 지명을 받아, 국보급 센터 서장훈(33·207cm)과 한 술밥을 먹게 됐다.

지난해 FA 최대 서장훈을 영입했던

KCC는 거물 하승진까지 가세하면서 철벽 골밑을 구축하게 됐다.

하승진은 1978년 한국 농구 사상 첫 고교생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됐던 아버지 하동기(200cm)씨의 뒤를 이어, 2003년 삼일상고 시절 사상 두 번째 고교생 국가대표로 선발돼 일찌감치 대형 기대주로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연세대 재학시절인 2004년에는 한국인 최

초로 미국프로농구(NBA) 포틀랜드에 입단하면서 큰 무대를 경험했다.

지난해 10월 “KBL에서 뛰겠다”며 국내 복귀를 선언한 이후 2008 KBL 신인 드래프트는 ‘하승진 드래프트’로 불리며 하승진의 거취에 관심이 몰렸다.

하승진과 함께 전체 1순위 지명을 놓고 경쟁했던 ‘아르헨티나 특급’ 김민수(26·경희대)는 서울 SK의 유니폼을 입는다. 한국계 어머니를 둔 아르헨티나 태생의 김민수는 200cm의 키에 탄력 넘치는 플레이로 국가대표팀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는 등 주목을 받아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경주, “뷰익 컷오프 불명에 실패했다”

내달 1일 PGA FBR 오픈 출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의 ‘안방’에서 시즌 첫 대결을 벌여 참패를 당한 ‘탱크’ 최경주(38·나이키골프)가 이번에는 필 미켈슨(미국)의 ‘덧밭’에서 징크스 탈출에 도전한다.

우즈의 일방적인 우승으로 막을 내린 뷰익인비테이셔널에서 컷오프되는 수모를 겪었던 최경주는 다음달 1일부터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의 스코츠데일TPC 스타디움코스(파 71·7천216야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FBR오픈에 출전한다.

뷰익인비테이셔널 컷오프로 체면을 구긴 최경주는 이 대회에서 강호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겠다는 각오.

하지만 뷰익인비테이셔널이 열린 토리파인

스골프장과 악연을 떨쳐내지 못한 최경주는 스코츠데일TPC와 인연도 그리 좋지 못하다.

작년까지 다섯 차례 스코츠데일TPC를 밟았던 최경주는 2005년 단 한 번밖에 컷을 통과하지 못했다. 60대 타수가 쏟아지는 쉬운 코스인데도 최경주는 이상하게 이곳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스코츠데일 인근에서 대학 시절을 보냈고 스코츠데일에서 오래 살아 스코츠데일TPC를 홈코스여기는 미켈슨도 부담스럽다.

미켈슨은 이 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을 포함해 8차례나 ‘탑10’에 입성했다.

작년에 최경주와 함께 컷오프를 당해 응원 나온 애리조나주립대 동창, 미켈슨은 “호흡기 질환으로 뷰익인비테이셔널에서는 연습조차 못했지만 이제 다 나왔다”며 우승급 탈환을 버리고 있다. /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 김두현

잉글랜드 웨스트브롬황

2006년 프로축구 K-리그 최우수선수(MVP) 출신의 국가대표 미드필더 김두현(26·상남 일화)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 리그(챔피언십) 웨스트 브로미치 앨비언(WBA·이하 웨스트브롬)에 입단한다.

김두현의 소속팀 상남은 현재 허정무호에 합류해 경기도 파주 NFC(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소집 훈련을 하고 있는 김두현이 웨스트브롬과 입단 계약을 체결해 29일 현지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전남 ‘리틀 드래곤즈’ 모집

프로축구 전남 드래곤즈가 2008년도 어린이 회원 ‘리틀 드래곤즈’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유치부~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어린이로 가입비는 3만원(1년)이다.

추가 회비(월 2만원)를 납부하면 매주 주말에 진행되는 축구교실에도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남 소속의 선수들이 직접 지도자로 나서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모집 기간은 2월 29일까지로 관련 문의는 전화(전남 드래곤즈 기획팀 061-815-0131)나 구단 홈페이지(www.dragons.c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골프·윈도 회원권

골프 장 세내비행	골프 장 세내비행
관 주 3,500	승 인비 1,700
남관주 4,400	골드 1,900
골프900 6,400	도 보왕 2,100

문의 : (062)351-0095